

## 박서준이 왜 그럴까... '심쿰 미소' 너무 달콤해!

### 바야흐로 '박서준 전성시대'

'쌈, 마이 웨이' 이어 '김비서...' 히트 로맨틱가이서 촌데레 연기까지 완벽 '윤식당2'서 친근한 이미지 CF계 접수 일찌감치 군복무, 대세 행보 이상무

가히 '박서준 전성시대'다. 연기자 박서준(30)이 올해 초 케이블채널 tvN '윤식당2'로 시작해 드라마와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활약상은 현재 출연 중인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이어진다. 이를 포함해 시청자는 다채로운 그의 모습을 일주일 내내 확인하고 있다. 대체 박서준의 매력은 어떤 것일까. '그녀는 예뻤다', '쌈, 마이 웨이' 그리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관통하는 로맨틱 가이의 이미지야말로 오늘의 박서준을 있게 한 힘일까. 일찌감치 군 복무를 마치고 또래 연기자들보다 더욱 여유로운 활동을 펼치며 자신의 시대를 열고 있는 박서준의 '오늘'을 통해 그의 매력 포인트를 확인한다.

#### ● '로코' 실력자

박서준의 한 마디에 여성 시청자는 '심쿰'한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통해 그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제대로 물이 올랐음을 과시하고 있다. 극중 박서준은 박민영에게 고백하며 "너무 좋아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랑해보려고, 내가 너를"이라는 등 오글거리지만 진심을 담은 대사를 담백하게 소화해 여성 시청자의 마음을 저격했다. '촌데레(무심정한 척 하면서 은근히 챙기는)' 캐릭터를 제 옷 입은 것처럼 표현해 실제 자신의 매력까지 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

박서준과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이 같은 찰떡궁합은 2015년 MBC '그녀는 예뻤다'로 시작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비슷한 '촌데레' 캐릭터로 여성 팬들의 관심을 얻었다. 까칠하면서도 속이 따뜻한 반전의 매력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며 지적인 이미지까지 돋보이게 했다. 지난해 KBS 2TV '쌈, 마이웨이'를 통해서 한 여성을 향한 순애보로 순수함을 내세워 '그녀는 예뻤다' 때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에 다가갔다.

박서준이 이처럼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데에는 상대역과 앙상블도 빼놓을 수 없다. 박민영을 비롯해 '쌈, 마이



연기자 박서준이 로맨틱한 매력으로 방송가를 장악하고 있다. 케이블채널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활약이 광고로 이어져 박서준은 현재 20여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나서고 있다. 일찌감치 군 복무를 마쳐 장기적인 계획 아래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주가를 더욱 높인다.

웨이' 김지원, '그녀는 예뻤다' 황정음 등과 완벽한 호흡을 과시하며 남녀의 설레는 사랑 이야기 중심인 장르의 특징을 살렸다.

#### ● 광고계도 접수

박서준을 두고 'TV만 켜면 나온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CF에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박서준은 TV는 물론 지면이나 온라인 등으로 공개되는 광고까지 포함해 무려 20여개 브랜드의 모델로 나서고 있다. 금융, 통신, 외식업, 커피, 주류, 화장품, 가전제품, 의류 등 스타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광고를 싣아왔다.

그만큼 박서준이 대중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광고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볼수록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전 연령층에서 두루두

루 호감을 얻는 스타가 모델로 기용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만한 스타로 꼽히는 박서준을 통해 광고주는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청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수익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박서준은 드라마나 영화 등



박서준

으로 얻는 인기의 영역을 전 국민을 상대로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박서준을 향한 광고주의 러브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신사적 매력과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달달함'을 뽐내고 있는 덕분이다. 한 광고 에이전시 관계자는 "이미 여러 광고를 통해 대중의 호감도와 신뢰도를 입증해 드라마가 종영해도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 '군필'의 여유

1988년생인 박서준은 입영 통지서가 언제 날아올지 몰라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 또 중요한 시기에 군 복무로 공백기를 보내 경쟁자에게 자리를 뺏길 것 같은 초조함을 느낄 이유도 없다. 데뷔하기 전에 군

복무를 마쳐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 김수현, 강하늘, 임시완 등처럼 한창 활동하며 인기를 누리던 때 입대하면서 군 복무로 보내게 될 최대 2년의 공백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박서준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의 실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심리적인 안정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통해 30대를 앞두고 있는 '군필' 배우들에게는 불가능한 장기계획을 세워 의도한 대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군필'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은 연기자로서 박서준 뿐만 아니라 그만큼 영화나 드라마 제작진에게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군필의 감점'을 샐러 박서준은 2012년 KBS 2TV '드림하이2'로 데뷔한 뒤 쉽지 않은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음원사이트 심야시간 차트 운영 중지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주요 음원사이트가 심야시간대에는 실시간 차트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가온차트정책위원회(정책위)에 따르면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 엠넷닷컴 등 6개 음원사이트는 11일부터 매일 새벽 1시에서 7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차트를 운영하지 않는 '차트 프리징'(chart freezing)을 적용한다. 음원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심야시간대에 이뤄진다고 의심되는 음원 사재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온차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국장은 "하루 중 음원 사용량이 급증하는 오전시간대를 노린 심야시간대 음원 사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뢰 있는 음원 차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방탄소년단, 내달 25일 단독 전시회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단독 전시회를 연다. 이들은 다음달 25일부터 10월28일까지 서울 중로구 아라아트센터에서 '2018 BTS EXHIBITION 오, 늘'을 연다. 전시회는 2015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으로,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준비하는 모습을 스케치한 사진과 멤버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비롯해 다채로운 영상을 공개한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전시회를 찾은 팬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기회로 보인다. 입장권은 10일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 가능하고, 잔여분은 현장 판매된다.

#### 2PM 우영, 육군 현역 입대

그룹 2PM의 우영(29)이 9일 입대했다. 우영은 이날 오후 2시 강원도 양구군 방사면 송현리 21사단 백두산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신병교육대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대 배치를 받아 현역으로 근무한다. 이날 입대 현장에는 같은 그룹의 멤버 찬성, 우영의 가족과 지인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우영은 지난해 9월 옥택연과 올해 5월 준케이에 이어 2PM 멤버로는 세 번째로 입대했다. 소속사 측은 우영의 입대 후 2PM의 공식 SNS를 통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우영의 모습을 공개했다. 앞서 우영은 지난해 16일 열린 팬 사인회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면서 진짜 사나이가 돼 여러분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 이종석, 도쿄 시작으로 월드투어

연기자 이종석이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 9일 소속사 YNK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종석은 8월17일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같은 달 19일 오사카에서 팬미팅을 연다. 국내에서는 9월1일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팬미팅을 열고 1년 만에 팬들과 만난다. 이후 9월9일 대만, 9월 15일 태국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 LA, 뉴욕 등 미주 일대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북미 지역에서 한국 배우가 단독으로 팬미팅을 여는 것은 그가 처음이다. 올해 이종석의 팬미팅은 해외 'crank up'(크랭크업), 국내 'pit a pat'(뚜근뚜근) 등 더블 타이틀로 기획됐다. 그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결을 지켜준 팬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콘셉트다. 배우 이종석이 미국 뉴욕아시아영화제에서

#### 김윤석, 美 뉴욕아시아영화제 스타상

올해의 아시아스타상을 수상했다. 김윤석은 최근 열린 제17회 뉴욕아시아영화제(NYAFF)에서 영화 '1987'로 아시아스타상을 받았다. 그는 '1987'의 연출자 장준환 감독과 함께 뉴욕으로 날아가 영화제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그해 6월 민주화항쟁까지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1987'에서 김윤석은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경찰 고위 간부 역으로 열연했다. 김윤석은 영화제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했다. 한편 김윤석에 앞서 2014년 설경구, 2016년 이병헌, 지난해 강동원이 뉴욕아시아영화제에서 아시아스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